



정약용의 마현(馬峴)에서의 삶과 교유관계

윤 혜 민
건국대 사학과
박사과정

국문요약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고향은 마현(馬峴)이다. 정약용은 벼슬했던 시기와 유배기간을 제외한 50여년이라는 인생의 대부분을 마현에서 보냈다. 이곳에서 삶과 죽음을 함께 한 것이다. 따라서 그의 삶에 있어서 마현은 큰 의미를 가지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정약용은 특히 한강을 끼고 있는 이곳을 좋아했으며, 많은 사람들과 뱃놀이를 즐기며 교유하였다. 이에 이 글에서는 정약용의 마현에서의 생활상과 함께 이곳에서의 교유관계를 정리해 인간 정약용의 삶에 대해 좀 더 폭넓게 이해하고자 한다.

마현은 북한강과 남한강 두 강이 만나는 합류지점에 자리 잡고 있어 사방으로 물길이 통하고 풍광이 아름답다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은 그가 물길과 배의 활용에 깊은 관심을 보이게 했고, 그것은 배다리를 제조하고 선박과 전선의 축조를 주장한 것에서 나타났다. 정약용에게 있어 마현은 이상적 공간이자 마음의 안식처이기도 했다. 배 띄우고 낚시를 즐기며 자연 속에서 노닐고 싶은 그의 평생의 꿈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그의 고향 마현이었다. 그는 벼슬살이 중에도 근무지를 이탈하여 이곳을 찾았고, 유배 중에도 이곳을 그리워했으며, 말년에는 이곳으로 돌아와 여생을 보냈다. 또, 마현은 실학자 정약용이 역사 지리를 고증하는 연구의 장이 되기도 했다.

정약용에게 있어 한강가의 고향 마현은 친우들과 교류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이기도 했다. 정치적 진로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했던 천주교와의 첫 만남도 바로 고향 마현의 강물 위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정약용은 1818년 유배에서 풀려 고향으로 돌아와서 생을 마감할 때 까지 고향 집에서 벗들을 만나 회포를 풀고 산수를 노닐기도 했고, 가까이 사는 명망 있는 학자들과 폭넓게 교류하면서 학문적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룩한 자신의 학문적 업적과 학설을 소개하고 싶어 했고, 학인들의 도움을 받아 이를 수정 보완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정약용은 자신의 저작들을 재정리할 수 있었다. 다산사상과 철학·실학 등 다산학문의 최종산실이 바로 마현이었던 것이다. 말년의 이러한 교류는 정약용에게 유배지에서의 지친 몸과 마음을 극복해나갈 수 있게 해주었다.

인간 정약용을 알기 위해서는 그의 사상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를 둘러싸고 있었던 배경과 그가 교류했던 인물들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정약용의 삶을 살펴봄으로써 인간 정약용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고, 더 나아가 그 시대의 개인 학자들의 삶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으면 한다.

머리말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고향은 마현(馬峴)이다. 정약용은 이곳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과거에 급제한 후에는 제일 먼저 고향으로 달려와 자축연을 벌이기도 했다. 그리고 마현 기슭에서 이벽(李穡)과 배를 탈 때, 처음으로 서학(西學)에 대해 듣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의 일생일대에 큰 영향을 미쳤던 천주교와의 첫 만남이었다. 이러한 일이 바로 마현에서 일어났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약용은 1800년(정조 24) 서교(西敎) 문제로 물의가 일자 마현으로 돌아와 생활하였으며, 강진에서 18년 동안 유배생활을 하면서도 고향을 많이 그리워했다. 유배지에서 풀려난 1818년(순조 18) 9월에 돌아와 죽을 때까지 다시 18년을 이곳에서 살았다. 그는 이 시기에 유배지에서 쇠약해진 심신을 추스르며 한강을 유람하고 사람들과 교류했으며, 자신의 생애와 학문을 정리하는 작업도 진행했다. 그리고 마침내는 1836년(헌종 2) 75세를 일기로 고향 마현에서 세상을 떠났다.

이처럼 정약용은 벼슬했던 시기와 유배기간을 제외한 50여년이라는 인생의 대부분을 마현에서 보냈다. 이곳에서 삶과 죽음을 함께 한 것이다. 따라서 그의 삶에 있어서 마현은 큰 의미를 가지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정약용은 특히 한강을 끼고 있는 이곳을 좋아했으며, 많은 사람들과 뱃놀이를 즐기며 교류하였다. 이에 정약용의 마현에서의 생활상과 함께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을 살펴봄으로써 그 교류관계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정약용에 대한 연구 성과들을 살펴보면, 주로 그의 사상과 학술에 대한 연구로 치우쳐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저작들을 분석하거나 그의 사상을 특정 인물의 사상과 비교한 것이 주류를 이룬다. 그래서 개인적인 일상사에 대한 연구는 의외로 일천하다,

생애를 볼 때도 강진 유배생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정약용의 고향 마현에서의 삶은 상대적으로 미약하게 다루어졌다.¹⁾ 최근 정약용의 후반생과 마현에 대한 저서가 나왔지만,²⁾ 단편적으로 사실을 나열하는데 그쳤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그래서 기존의 정약용에 대한 연구 성과들을 충분히 활용하여 정약용의 마현에서의 삶을 종합적으로 밝힐 연구가 필요하다.

제 I 장에서는 정약용의 마현에서의 삶과 교유관계를 검토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먼저 마현의 지역적 특징을 파악하고, 정약용의 선대가 그곳에 정착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정약용의 삶에 마현이라는 지역이 미친 영향과 함께 정약용에게 있어서 마현이라는 장소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제 II 장에서는 마현에서의 교유관계를 유배생활 전과 후 두 시기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유배 전 시기에는 특히 이곳에서 서학과 관련하여 만났던 인물들을 알아보고 그들의 활동들을 주목해보려 한다. 유배 후 시기에는 유배 전과의 교유관계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으며, 어떠한 인물들과 교류하며 말년을 보냈는지 그리고 그들과의 교유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볼 것이다. 이상의 2개의 장으로 나누어 정약용의 마현에서의 생활과 교유관계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정약용의 삶에 대해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으면 한다.

I. 마현과 정약용의 삶

1. 마현 지역의 유래와 특징

마현(馬峴)은 북한강과 남한강이 하나로 합쳐져 한강으로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사방으로 물길이 통하고 풍광이 뛰어나게 아름다운 수향(水鄕)이었다. 정약용은 이곳에서 태어나 50여년의 세월을 보내고 이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가 일생의 대부분을 보냈던 곳이었기에 마현에서의 삶이 정약용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충분히 짐작되고도 남는

-
- 1) 박석무, 2003, 『다산 정약용 유배지에서 만나다』, 한길사.
 이덕일, 2004,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 김영사.
 금장태, 2005, 『다산 정약용-유학과 서학의 창조적 종합자』, 살림.
 _____, 2005, 『실천적 이론가 정약용』, 이팔리오.
 _____, 2011, 『다산 평전』, 지식과 교양.
 _____, 2012, 『정약용-한국실학의 집대성』,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 윤종일·임병규, 2010, 『열수와 마현』, 경인문화사.
 차벽, 2010, 『다산의 후반생』, 돌베개.

다. 이에 정약용이 어떻게 이곳에서 생활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고, 마현에서의 삶을 파악하기 위한 단초로 이곳의 지역적 특징을 먼저 파악해보도록 하겠다.

정약용은 1762년(영조 38) 음력 6월 16일에 한강의 두물머리[兩水里] 근처인 마현(馬峴)에서 태어났다.³⁾ 당시의 행정구역으로는 ‘경기도 광주부(廣州府) 초부면(草阜面)’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현재는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鳥安面) 능내리(陵內里)’에 속해 있는 곳이다. 정약용의 5대조인 정시윤(丁時潤)이 이곳에 터를 잡고 산 이후, 정약용의 집안은 대대로 이곳에서 거처하였다. 정시윤이 이곳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숙종 대 크게 흉년이 들어 연경(燕京)에서 쌀을 빌려오자는 의논이 있었는데, 정시윤은 상소를 올려 그것의 불가함을 말하였다.⁴⁾ 숙종은 이를 사사로운 생각 때문이라고 판단하며 노여워하였고, 그를 전리(田里)로 방환(放還)시켰다.⁵⁾ 정시윤은 한강의 물가를 따라 살 곳을 구하다가, 마현에 자리를 잡고 임청정(臨淸亭)을 지어 은거하였다. 이때, 세 아들은 동서(東西)로 나누어 거처하게 하였고 서자(庶子)는 북쪽에 자리를 잡게 하였는데, 바로 이 북쪽이 후에 정약용의 집이 되었다.⁶⁾

마현은 강물에 의하여 모래가 옮겨와 퇴적 작용으로 생긴 지역이었다. 남한강과 북한강은 부암(虎巖) 지점에서 합류하여 서쪽으로 흘러갔는데, 북한강의 물길은 강력하게 밀어 붙이는 남한강에 밀려 이곳에 사구(砂丘)를 이루었다. 그 사구가 발달하여 사람이 살게 된 곳이 마현이었다. 그리고 그 경계선에 소천(菴川·牛川)이 생겨나게 되었다.

옛날 백 년 전에는 소양강(昭陽江)이 고랑(阜狼) 아래에 이르러 동쪽으로 남주(藍洲)의 북쪽을 지나 남강(南江)에 들어갔다. 그러므로 남강은 물살이 빠르고 거세게 곧장 서쪽으로 달려 반고(盤阜)의 아래에서 합쳐졌다. 그리하여 홍수가 질 때마다 반고는 물에 잠기므로 사람들이 그곳에는 살지 않았다. 그 뒤에는 소양강이 아래로 부암(虎巖)의 남쪽에 이르러 비로소 남강과 만나 남강의 거센 물살을 밀어내어 물리쳤다. 물은 귀음(龜陰)의 강기슭을 지나 석호(石湖)의 동쪽에 이르러 비로소 꺾어져 서쪽으로 향하게 되므로, 이때는 반고가 우뚝 높은 위치에 있게 되어 촌락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소천(菴川)이 생기게 된 역사이다.⁷⁾

3) 정약용, 『茶山詩文集』 제16권, 「自撰墓誌銘」
4) 정약용, 『다산시문집』 제17권, 「家乘遺事」
5) 정약용, 『與猶堂全書』 제1집, 詩文集 제14권, 「臨淸亭記」
6) 정약용, 『다산시문집』 제17권, 「家乘遺事」
7) 정약용, 『다산시문집』 제14권, 「臨淸亭記」

정약용의 고향은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려졌다. 먼저, ‘철마(鐵馬) 고개’라는 뜻으로 ‘마현’ 또는 ‘마재’라고 했다.⁸⁾ 마을의 북쪽 산등마루에 크기가 쥐만 한 철마(鐵馬)가 있었는데, 백성들이 콩과 보리를 삶아서 제사를 지내면서 동네를 마현이라고 이름 했다는 것이다.⁹⁾ 그리고 ‘두척(斗尺)’이라고도 했는데, 이는 ‘마재’와 ‘말자(말척)’의 발음이 비슷해서였다.¹⁰⁾ 또, 조선 초기의 인물 한확(韓確)의 묘소가 있는 곳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능내(陵內)’라고도 불렀으며, 소천(苕川)과 붙어 있어 ‘소천[소내]’·‘초천’으로도 일컬어졌다.

정약용은 이곳의 지명을 따라 자신의 호(號)를 삼기도 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정약용이 마현이라는 고개 이름이 아닌 자신의 집 앞에 흐르는 강과 관련한 호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시문(詩文)에서 가장 자주 사용했던 이름은 바로 ‘소천[소내]’이다.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했던 호는 ‘열수(洌水)’이다. 정약용의 고향 소내를 흐르는 한강의 옛 이름이 열수였다고 그가 고증해냈기 때문이었다.¹¹⁾

열수(洌水)는 한수(漢水)이다. 한 무제(漢武帝)가 이미 위만(衛滿)을 평정하고 열수 이북을 사군(四郡)으로 만들어서 한나라에 붙였다. 그 후 광무(光武)가 다시 사신을 보내서 열수 이북은 한나라에 붙였고 그 남쪽은 삼한(三韓)이 되었다. 그런 까닭으로 삼한 사람이 열수를 한수(漢水)라 했으나 실상은 본디 열수였다. ... 내 생각에는, 지금 왕경(王京)이 열수 가에 있으니, 남쪽에 있는 것은 남으로부터 북으로 서울로 향하게 되며, 북쪽에 있는 것은 북쪽으로부터 남으로 하는 것도 서울로 향하게 된다.¹²⁾

한사군(漢四郡)의 경계를 이루던 강이라서 한강이라고 이름 붙여졌지만, 원래 이름은 열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는 유배지에서 돌아와 말년에 이곳에 거처하면서, ‘열수’·‘열상노인(洌上老人)’·‘열초(洌樵)’ 등을 자신의 호로 즐겨 사용하였다. 이는 정약용이 한강에 사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이었으며, 그가 이 강에 대해 깊은 애착을 갖고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정약용의 5대조인 정시윤이 마현에 자리를 잡은 인연으로, 정약용은 이곳에서 태어나 75년의 일생 중 50년 가까운 세월을 고향 마현에서 머물렀다. 마현은 북한강과 남한강 두 강이 만나는 합류지점에 자리 잡고 있어 사방으로 물길이 통하고 풍광이 아름답다는

8) 강 건너 분원(分院)으로 말을 타고 가던 길목이어서 그렇게 불렀다는 이야기도 있다.(박석무, 2003, 『다산 정약용 유배지에서 만나다』, 한길사, 99쪽.)

9) 정약용, 『다산시문집』 제12권, 「鐵馬辨」

10) 금장태, 2011, 『다산 평전』, 지식과 교양, 15쪽.

11)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정약용의 「산수심원기(山水尋源記)」에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12) 정약용, 『經世遺表』 제9권, 地官修制 田制別考2

큰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정약용은 이 강에 대해 깊은 애착을 보였다. 정약용이 한강을 어떻게 활용하며 생활하였는지, 그리고 정약용의 삶에 있어서 마현이라는 공간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지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정약용의 삶에서 마현이 가지는 의미

정약용의 고향인 마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한강과 접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은 그가 물길과 배에 남다른 관심을 갖도록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정약용에게 있어 마현은 이상적 공간이기도 했다. 배 띄우고 낚시를 즐기며 자연 속에서 노니는 것이 그의 평생의 꿈이었는데, 그것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그의 고향 마현이었다. 그는 벼슬살이 중에도 근무지를 이탈하여 이곳을 찾았고, 유배 중에도 이곳을 그리워했으며, 말년에는 이곳으로 돌아와 여생을 보냈다. 또, 마현은 실학자 정약용이 역사 지리를 고증하는 연구의 장(場)이 되기도 했다. 이 장에서는 정약용의 삶에 마현이라는 장소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정약용은 강가에 거처하면서 물길의 중요성에 대해 강하게 인식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가 쓴 「택리지 발문[跋擇里志]」에는 거처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다음의 기록이 있다. “마땅히 먼저 물길과 땀나뭇길을 살펴보고, 다음은 오곡(五穀), 다음은 풍속(風俗), 다음은 산천(山川)의 경치 등을 살펴야 한다.”¹³⁾고 언급한 내용이 그것이다. 정약용은 물길이 멀면 인력(人力)이 지치게 된다고 덧붙여 설명하였는데, 가장 먼저 물길을 꼽았다는 점에서 물을 중히 여긴 그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정약용은 어린 시절부터 배를 즐겨 이용하였는데, 그러한 경험이 바탕이 되어서 배의 활용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1789년(정조 13) 10월에 배다리[舟橋]¹⁴⁾를 제조한 일을 들 수 있다. 정조는 친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무덤을 양주 배봉산(拜峯山) 아래에서 수원 화산(花山)으로 이장할 계획을 세우면서 한강을 건널 배다리를 계획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정약용은 배다리 설치의 설계를 담당하였다.¹⁵⁾ 배다리의 설치는 여러 나무터의 배를 징발하여 관리하며, 배의 크기와 배열 등을 고려하여 대규모 행렬이 안전하게 지나가게 해야 하는 큰 공사였다. 이러한 일을 다루려면 무엇보다

13) 정약용, 『여유당전서』 제1집, 詩文集 제14권, 「跋擇里志」

14) 배다리를 그린 그림으로는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4, 『園幸乙卯整理儀軌(影印本)』, 서울대학교 규장각, 68~69쪽 「舟橋圖」가 참조된다.

15) 배다리를 만드는 데 소요된 물자와 동원된 인원 등 배다리 관련 업무에 대한 자세한 기록으로는 『弘齋全書』 제59권, 雜著 6 「舟橋指南」; 『정조실록』 1790년(정조 14) 7월 1일(기묘); 『정조실록』 1793년(정조 17) 1월 11일(을사)가 참조된다. 정약용은 배다리에 대해 시를 짓기도 했다.(『다산시문집』 제2권, 「舟橋行」·「過舟橋」)

도 특히 배에 대한 과학적 원리와 기술 및 배의 운영 상황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약용은 평소 배를 타고 다니며 경험했던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배에 관한 정약용의 관심은 선박(船舶)과 전선(戰船)의 축조를 주장한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는 선박의 제조기술을 장려하기 위해서 전함사(典艦司)와 같은 관청을 중앙정부에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¹⁶⁾ 그리고 정약용은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강이 많아 모든 일용 백물을 배로 운반하는 것이 긴요한데, 배를 제조하는 데에 통일된 제도가 없음을 날카롭게 지적하였다.

그런데 나라 안의 배는 혹 크고 혹은 작으며, 혹은 길고 혹은 짧다. 혹 좁으면서 길고 혹 넓으면서 짧으며, 혹 크면서 얇고 혹 작으면서 깊어서 천백가지 형태가 하나도 같은 것이 없다. ... 어떻게 하면 짐을 무겁게 실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경쾌하게 달리며, 어떻게 하면 바람에 잘 견디며, 어떻게 하면 물에 잘 뜨게 되는지 그 까닭을 대부분 아득하게 모른다. 이와 같음은 무슨 까닭인가? 비례해서 차등하는 데에 본디 정한 법이 없기 때문이다.¹⁷⁾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약용은 훌륭한 공장(工匠)을 불러서 그 법을 중국의 가장 오래 된 공예기술서인 『고공기(考工記)』처럼 만들자고 하였다. 이때, 그는 배의 재료인 소나무에 대해서도 각지의 좋은 소나무들을 기록해두었다가 배를 건조할 때 참고할 것을 주장하였다.

정약용은 배의 전선(戰船)으로서의 기능도 중시하였다. 그는 “대체로 내지(內地)에서 적(賊)을 막는 것보다는 바다 밖에서 적을 막는 것이 낫다. 전선(戰船)은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 매우 이로운 기구이다.”¹⁸⁾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정약용은 우리나라의 전선 제도가 아직 황무지에서 헤어날지 못하고 있다며 한탄하였고, 이순신(李舜臣)이 한산도(閑山島)에서 왜적을 물리친 일을 언급하며 전선을 방비할 것을 피력하였다.¹⁹⁾

이처럼 정약용은 물길과 함께 배의 제조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이는 정약용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된다. 비슷한 사례로 이지함(李之菡)과 이산해(李山海)를 들 수 있는데, 이 둘은 충청도 해안지역에 살면서 해양 자원의 개발을 적극 주장하였다.²⁰⁾ 한 인물의 지역적 기반이 그의 사상과 활동에 막대한

16) 위정철, 2012, 『존재 위백규와 다산 정약용의 생애와 사상연구』, 한국학술정보, 281쪽.

17) 정약용, 『경세유표』 제14권, 摠論

18) 정약용, 『여유당전서』 제1집, 詩文集 제9권, 策問 「戰船策」

19) 정약용, 『다산시문집』 제9권, 「戰船策」

20) 신병주, 2010, 『관료학자 李山海의 학문과 현실대응』, 한국문화, 188~192쪽 참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편, 정약용에게 있어 고향 마현은 그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이상적 공간이 되기도 했다. 정약용은 배를 띄우고 낚시를 즐기며 자연 속에서 노닐고 싶다는 뜻을 자주 내비쳤다. 친구 강인백(姜仁伯)에게 “나의 평생소원은 산수(山水)에서 생활하면서 현호(賢豪)한 장자(長者)와 더불어 물외(物外)에 노닐며 읊조리는 것입니다.”²¹⁾라고 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자신의 소원을 기록해 둔 것도 있다.

나는 적은 돈으로 배 하나를 사서 배 안에 어망(漁網) 네댓 개와 낚싯대 한두 개를 갖추어 놓고, 또 솔과 잔과 소반 같은 여러 가지 섭생에 필요한 기구를 준비하며 방 한 칸을 만들어 온돌을 놓고 싶다. 그리고 두 아이들에게 집을 지키게 하고, 늙은 아내와 어린아이 및 어린 중 한 명을 이끌고 부가범택(浮家汎宅: 물에 떠다니면서 살림을 하고 사는 배)으로 종산(鐘山)과 초수(菴水) 사이를 왕래하면서 오늘은 오계(奧溪)의 연못에서 고기를 잡고, 내일은 석호(石湖)에서 낚시질하며, 또 그 다음날은 문암(門巖)의 여울에서 고기를 잡는다. 바람을 맞으며 물 위에서 잠을 자고 마치 물결에 떠다니는 오리들처럼 동실동실 떠다니다가, 때때로 짤막짤막한 시가(詩歌)를 지어 스스로 기구한 정회를 읊고자 한다. 이것이 나의 소원이다.²²⁾

정약용은 이러한 평생의 꿈을 고향에서 실현하고자 했다. 그는 옛 사람 중에 이런 일을 실행에 옮긴 당나라 때 은사(隱士) 장지화(張志和)를 모델로 삼았다. 장지화가 자신의 호(號)를 ‘안개와 물결 속에 낚시하는 늙은이’라는 뜻으로 ‘연파조수(煙波釣叟)’라 지었던 옛일을 모방하여, 자신이 생활할 배에다 ‘소내 강가의 안개와 물결 속에 낚시질 하는 늙은이의 집’이라는 뜻인 ‘소상연파조수지가(筍上煙波釣叟之家)’라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그것을 공장(工匠)에게 목판에 새기게 하고 간직했다.²³⁾

정약용의 고향에 대한 애착은 고향을 떠나 있던 사환기(仕宦期)와 유배생활기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단적인 예로, 먼저 벼슬생활 중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2박 3일 고향을 방문하였던 일을 들 수 있다. 1797년(정조 21) 여름, 당시 승정원(承政院)에서 좌부승지(左副承旨)로 일했던 정약용은 고향이 그리웠다. “나는 소내에서 물고기를 잡는 데 가장 알맞은 때라고 생각했다. 법제상 대부(大夫)가 휴가를 청하여 윤희를 얻지 않고서는 도성 문을 나서지 못하지만,²⁴⁾ 휴가를 얻을 수 없었으므로 그대로 출발하여 소내에 갔다.”²⁵⁾ 조정의 승

21) 정약용, 『다산시문집』 제19권, 「與姜仁伯履元」

22) 정약용, 『여유당전서』 제1집, 詩文集 제14권, 「菴上煙波釣叟之家記」

23) 정약용, 『다산시문집』 제14권, 「菴上煙波釣叟之家記」

24)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휴가를 주는 규례가 명시되어 있다.(『경국대전』 「吏典」 土官職 給假; 「禮典」 給假)

인 없이 도성 밖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어기고 서울을 떠나 고향으로 달려 갔던 것이다. 그는 마현에서 형제들과 배를 타고 나가 물고기를 잡아 끓여 먹기도 하고, 천진암(天真菴)에 가서 노닐기도 했으며, 술을 마시며 시를 읊기도 했다.²⁶⁾

유배생활 중에도 정약용은 고향을 많이 그리워했다. 그는 송(宋)나라 때 소식(蘇軾)이 귀양지에서 아미산(峨眉山)을 보고 자기 고향의 아미산을 떠올려 그것을 그리며 그리움을 달랜 것과 같이, 고향인 마현을 그리고 노래하며 향수를 달랬다. 정약용은 “나도 지금 소내를 그려서 보고픈데, 세상에 화공이 없으니 그 누구에게 부탁하랴”²⁷⁾하며, 손수 그림을 그렸다. 처음에는 시험 삼아 수묵으로 초벌 그림을 그려보고, 후에 비단에 옮겨 그려 객당의 서북쪽에 걸어두었다. 그러고는 갈 수 없는 그림 속의 집을 보며 그 앞에서 서성거리며 착잡해 했다.

정약용에게 있어 마현은 자신이 꿈꾸는 공간이었으며 마음의 안식처였던 것이다. 정약용의 고향에 대한 애정은 “남녘 땅 수 천리를 노닐었으나, 이와 같은 지역은 찾지 못했네.”²⁸⁾ 라는 말에서도 찾을 수 있으며, 유배 중에 두 아들이 거처를 강진으로 옮기려 하자 고향의 터전을 굳게 지키라고 당부하는 편지를 보낸 것²⁹⁾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약용이 마현에서 물길을 따라 역사 지리를 고증하러 다녔던 것도 주목된다. 1823년(순조 23) 4월 15일, 정약용은 자신의 아들 학연(學淵)과 손자 대림(大林)을 데리고 손자며느리를 맞아오기 위해 춘천에 갔다.³⁰⁾ 이때, 그는 갈라지는 물줄기와 수십여 개 여울의 특징을 비롯하여 지나는 마을의 사적(史蹟)과 연고가 있는 인물 등 많은 정보를 일일이 적어두었다.³¹⁾ 이 여행 기록이 「산행일기(山行日記)」이고, 북한강의 여러 물길과 역사적 배경을 고증한 역사지리서가 「산수심원기(山水尋源記)」이다. 이는 정약용이 마현을 단순히 유람하는 공간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역사 지리 연구의 장소로 삼았음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정약용의 역사 지리적 고증작업의 산물로 『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와 『대동수경(大東水經)』 등도 편찬되었다. 『아방강역고』는 기사(箕子)조선에서 발해까지 나라마다 강역과 지명의 연혁을 고증한 것이었으며, 『대동수경』은 우리나라 강(江)의 역사 지리를 고증한 것이었다. 정약용은 『대동수경』에서 외조부 윤두서(尹斗緒)의 지도를 중요한 참고 자료로 인용하였는데,³²⁾ 정약용이 역사지리 고증에 관심이 많았던 것에는 외가의 가풍

25) 이에 대한 기록은 ‘정약용, 『여유당전서』 제1집, 詩文集 제14권, 「游天真菴記」에 자세하다.

26) 정약용, 『다산시문집』 제3권, 「端午日陪二兄游天真庵」

27) 정약용, 『다산시문집』 제4권, 「戲作蒼溪圖」

28) 정약용, 『여유당전서』 제1집, 詩文集 제1권, 「還蒼川居」

29) 정약용, 『다산시문집』 제18권, 「示二子家誠」

30) 심경호, 1996, 「다산과 춘천」, 강원대학교출판부 참조.

31) 정약용, 『다산시문집』 제22권, 「山行日記」

32) 정약용의 『대동수경』과 윤두서의 지도에 대해서는 ‘양보경, 1993, 「정약용의 『大東水經』」, 『토지연구』 11·12월 호, 111~112쪽’이 참조된다.

을 물려받았다는 점도 작용했다고 짐작된다.

정리하자면, 정약용은 고향 마현이 강가에 있다는 환경적 요인을 통해 물길과 배의 활용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것은 배다리를 제조하고, 선박과 전선의 축조를 주장한 것에서 나타났다. 정약용은 특히 고향에 대한 강한 애착심을 보였다. 정약용에게 있어 마현은 배타고 유람하며 살고자 하는 자신에게 이상의 공간이자 마음의 안식처였으며, 또 단순히 유람하는 공간에서 더 나아가 역사 지리를 고증하는 연구의 장소이기도 했다.

II. 마현에서의 교유관계

조선시대 한강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교통로로서의 기능이 가장 컸다. 지역과 지역 간의 물적 교류는 물론이고 인적 교류도 한강의 물길을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정약용에게 있어 한강가의 고향 마현은 친우(親友)들과 교류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였다. 함께 배를 타고 산수를 즐기기도 했고, 뱃길로 편지를 주고받기도 했다. 특히, 강물 위에 떠 있는 배라는 공간은 구성원들을 밀착시켜 주는 기능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밖으로 쉽게 나갈 수 없어 외부와 단절된 자신들만의 공간이 확보되며, 여러 명이 동시에 모여서 이야기 할 장소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정약용이 천주교(西學)에 대한 이야기를 배 안에서 접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정약용이 살았던 18세기 말에는 서울과 근교 군현들의 도시화와 함께 한강변의 취락이 발달하였다. 도시생활은 사환기의 교거(僑居)에 불과한 반면, 세거(世居) 할 별업지(別業地)는 한강 부근에 가려두는 것이 보통이었다.³³⁾ 물길이 바로 서울과 이어지고 산수가 수려하다는 점이 그러한 입지 조건을 이루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많은 지식인들이 당색(黨色)을 불문하고 한강 가에 거주하면서, 직접 혹은 간접으로 영향을 주고받기도 했다.³⁴⁾ <부록1 참조> 정약용도 바로 여기에 포함되는 인물이었다. 정약용이 어떠한 사람들과 교유했는지 유배생활 전후로 시기를 나누어 살펴보겠다.

33) 심경호, 1998, 「조선후기 북한강 유역의 학맥과 분포」, 『북한강유역의 유학사상』,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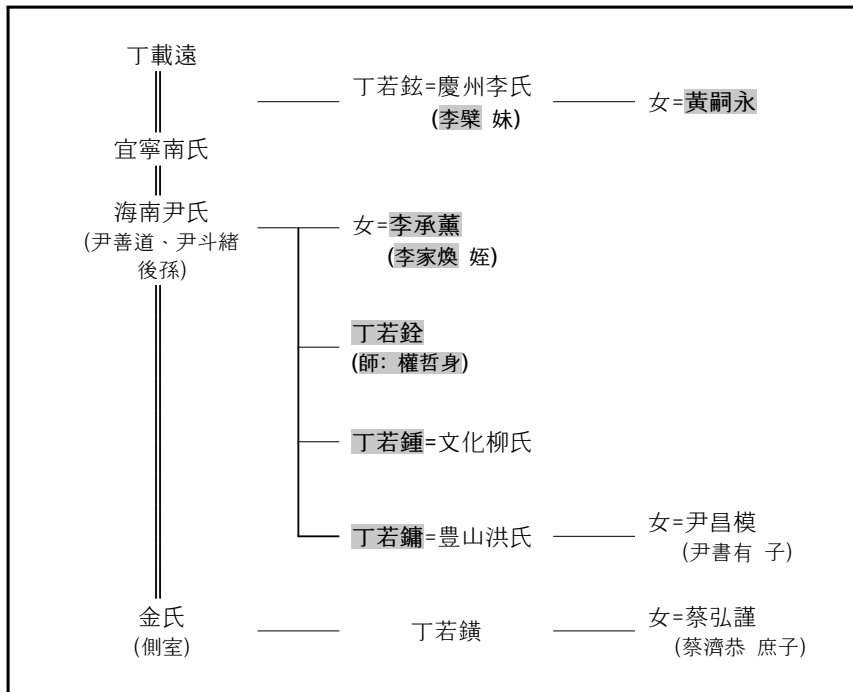
34) 수도권에 거처하면서 일정한 학문적 공감대를 가지고 조선후기 학계의 변화를 주도했던 학인(學人)들을 ‘경기학인(京畿學人)’이라고 지칭하였다.(김문식, 1996, 『朝鮮後期 經學思想研究-正祖와 京畿學人을 중심으로-』, 일조각, 7쪽.)

1. 천주교와의 만남

정약용이 유배 이전에 마현에서 교유했던 인물들은 주로 친인척들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정약용이 아버지의 임소(任所)에 따라 다녔고, 과거 공부와 벼슬을 위해 서울에도 올라가 있었기 때문이다.³⁵⁾ 유배생활 이전 고향에서 교유관계를 맺었던 사람들 중에서 제일 주목 되는 인물은 바로 이벽(李穡: 1754~1786)이다. 정약용에게 처음으로 천주교를 접하게 한 자이기 때문이다. 정약용의 정치적 진로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했던 천주교와의 첫 만남은 고향 마현의 강물 위에서 이벽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이다.

〈표 4〉 정약용 집안의 주요 가계도

(※ 천주교 신자에는 음영표시를 함.)



정약용의 집안은 혼맥으로 이익(李瀾) 계열의 학통을 계승하였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정약용일가가 천주교와의 관련을 맺게 되는 동기를 제공하였다. 이벽은 정약용의 맏형인 정약현(丁若鉉)의 처남이었으니, 정약용과는 사돈 관계였다. 정약용의 누이는 조선 최초의 영

35) 정약용의 서울 인맥으로는 규장각 출신의 학자들, ‘죽란시사(竹欄詩社)’ 시동인(詩同人) 등이 있었다. ‘죽란시사’에 대해서는 ‘정약용, 『다산시문집』 제13권, 『竹欄詩社帖序』’가 참조된다.

세교인인 이승훈(李承薰)에게 시집갔으니, 이승훈은 정약용에게 매부(妹夫)가 되었다. 이승훈의 외삼촌이 이익의 증손인 이가환(李家煥)이었으므로, 정약용은 이가환과도 인척간이 되었다. 이처럼 천주교 신자들이 집안에 많았다. 정약용 집안의 주요 가계도를 정리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이벽은 정약용에게 학문적³⁶⁾·인간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고, 정약용은 자신보다 8살이 많았던 이벽을 잘 따랐다. 정약용이 이벽에게 준 시(詩)에 “현인 호걸 기운은 서로 투합하여, 친근하고 도탑게 정을 나누네. 학덕을 애써 일찍 닦으니. 강개한 빛 얼굴에 항상 보이네.”³⁷⁾라는 구절이 있어, 정약용이 그를 매우 친밀하게 느꼈으며 학덕(學德)을 깊이 존경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1784년(정조 8) 4월 15일에 벌어진 정약용과 이벽의 만남은 정약용에게 평생의 짐을 지어주었다. 그 날은 큰형수의 제삿날이어서 정약용은 고향 마현으로 내려갔다. 이때, 이벽도 누나의 제사에 참석하기 위해 마현을 방문했다. 제사가 끝나고 정약용과 둘째형 정약전(丁若銓) 그리고 이벽은 함께 서울로 돌아가려고 한강에서 배를 탔다. 물길을 따라 내려오다가 두미협(斗尾峽: 현재 경기도 하남시 배알미동)에 이르렀을 때, 배 안에서 정약용 형제는 이벽에게 천주교 교리를 들었다.³⁸⁾ 경기도 광주에 있던³⁹⁾ 두미협은 한강이 합수하는 곳으로,⁴⁰⁾ 마현에서 서울로 가려면 꼭 거쳐 가야 했던 곳이다. 한강을 따라 이동하는 배 위에서 정약용은 천주교의 교리를 듣게 된 것이다.

정약용이 이벽으로부터 들었던 천주교 교리의 내용은 천주(天主)에 의해 이루어진 천지창조와 육신과 영혼의 개념 및 사후세계에 대한 것 등으로 추측된다. 당시 정약용은 새로운 지식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왕성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20대였다. 그래서 이벽의 설명을 들었을 때, 더욱 혼돈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된 감회에 대해 정약용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형수의 기제(忌祭)를 지내고 나서 우리 형제와 이벽이 한 배를 타고 물길을 따라 내려올 적에 배 안에서 이벽에게 천지(天地) 조화(造化)의 시작과 육신과 영혼의 생사(生死)에 대한 이치를 듣고는 정신이 어리둥절하여 마치 하한(河漢)이 끝이 없는 것 같았다.⁴¹⁾

36) 정조가 성균관 유생에게 『중용강의(中庸講義)』 80여 조를 내렸을 때, 정약용은 이벽과 함께 깊은 토론을 나누고 답안지를 작성하여 칭찬을 들은 적도 있다.(정약용, 『여유당전서』 제1집, 詩文集 제16권 「自撰墓誌銘」 集中本)

37) 정약용, 『다산시문집』 제1권, 「贈李檠」

38) 정약용, 『다산시문집』 제16권, 「自撰墓誌銘」 集中本

39) 『新增東國輿地勝覽』 제6권, 京畿 廣州牧

40) 이익, 『星湖僿說』 제3권, 天地門 漢都

41) 정약용, 『여유당전서』 제1집, 詩文集 제15권, 「先仲氏墓誌銘」

정약용은 이벽과 함께 배를 타고 강을 따라 서울로 올라오면서 시를 지었다. “소식(蘇軾)은 재주 높아 물과 달을 이야기했고, 이응(李膺)은 이름 중해 신선과 같았는지. 내 재주 즐컬하여 별 수 없음 잘 알지. 낡은 서적 중사하여 옛 성현 보답하려네.”⁴²⁾ 정약용은 이벽을 송나라 때 시인 소식(蘇軾)과 후한(後漢)의 명사(名士) 이응(李膺)에 견주었다. 이벽이 설명하는 천주교 교리가 천지의 무한함을 읊은 소식의 「적벽부(赤壁賦)」와 비견되었으며, 그가 신선과 같으며 높은 재주가 있다고 믿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약용은 자신도 재주를 다하여 경전공부에 힘써서 옛 성현에 보답하겠다고 다짐하였던 것이다. 이 말의 뜻은 이벽에게서 들은 천주교교리의 세계가 유교경전의 가르침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 교리의 빛으로 비춰보면 유교경전이 그 진리의 새로운 면모를 드러낼 수 있다는 신념을 토로한 것이라 짐작된다.⁴³⁾

이때부터 정약용 형제는 곧바로 천주교 신앙에 빠져들어,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수표교(水標橋)에 살던 이벽의 집으로 따라갔다. 그곳에서 마테오리치(Matteo Ricci)의 『천주실의(天主實義)』와 판토하(Pantoja)의 『칠극(七克)』 등 몇 권의 천주교 교리서를 빌려 읽으면서 천주교 신앙에 점차 마음이 쏠리게 되었다. 이 무렵 정약용은 천주교에 입교하였고, 요한으로 세례명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출세의 중요한 시점마다 반대파로부터 집요한 공격을 받게 하고 결국 전라남도에서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유배생활을 하게 했던 정약용과 천주교와의 첫 만남이었다.

2. 해배(解配) 후의 교유관계

정약용은 1818년(순조 18)에 57세의 나이로 유배에서 풀려 고향으로 돌아와서 1836년(헌종 2) 생을 마감할 때 까지 18년을 고향의 집 여유당(與猶堂)⁴⁴⁾에서 생활했다. 유배기간 중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며 고향에서 말년을 보냈던 것이다. 그는 옛 벗들을 만나 회포를 풀고 산수를 노닐기도 했고, 가까이 사는 명망 있는 학자들과 폭넓게 교류하면서 학문적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룩한 자신의 학문적 업적과 학설을 소개하고 싶어 했고, 학인(學人)들의 도움을 받아 이를 수정 보완하는데 까지 이르고자 했다.

정약용이 유배에서 풀려 고향에 돌아왔을 때, 반가워하며 달려 온 친구들이 있었다. 먼저, 사돈인 윤서유(尹書有)가 왔다. 윤서유는 해남 윤씨로 원래는 강진에서 살았다. 그래서 정약용이 유배갔을 때, 술과 고기를 보내주기도 했다. 윤서유는 1812년(순조 12) 북쪽으로 이사

42) 정약용, 『다산시문집』 제1권, 「同友人李德操乘舟入京」

43) 금장태, 2011, 『다산 평전』, 지식과 교양, 38쪽.

44) 여유당을 짓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정약용, 『여유당전서』 제1집, 詩文集 제13권, 「與猶堂記」’ 참조.

를 해 정약용 고향집 이웃에 터를 잡았다. 이웃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정약용이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왔을 때, 바로 찾아올 수 있었다. 정약용은 이웃에 살게 되어 그와 더욱 관계가 친밀해졌다고 이야기했다.⁴⁵⁾ 정약용과 윤서유는 초라담(鈔羅潭)에 배를 띄워 물 따라 내려가기도 하고 목욕을 하기도 하면서 정을 나눴다.

이외에도 정약용은 예전에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을 만났다. 정약용은 작은형 정약전과 자주 어울려 다녔던⁴⁶⁾ 윤영희(尹永僖)를 찾아가 회포를 풀었다. 윤영희가 광주 송파에 살아서 뱃길을 따라 가기 쉬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젊은 시절 정약용과 ‘죽란시사’에 속해 있었던 이유수(李儒修)가 그를 잊지 않고 해배 후 1년 뒤에 찾아왔다. 이유수는 정약용에게 “벗이 돌아왔으니 내가 세상일에 의욕이 생긴다.”⁴⁷⁾고 하며 기쁨을 표현했다. 윤지범(尹持範)도 원주에서 정약용을 찾아와 며칠을 묵어갔다. 정약용이 유배 중이었을 때, 윤지범은 여러 차례 정약용에게 시를 보냈고 정약용의 고향에 들릴 때면 정약용이 답한 시를 읽으며 눈물을 흘리곤 했었다.⁴⁸⁾ 이렇게 각별하게 정약용을 아꼈던 윤지범은 정약용과 말년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정약용은 윤지범과 만나 회포를 풀 때면 설레지 않는 날이 없다고 하였고, 외로운 시름을 윤지범과 함께 달랠다고 이야기할 정도였다.⁴⁹⁾ 그리고 편지를 보낼 때, 된장을 보내주는 따뜻한 정을 보이기도 했다.⁵⁰⁾

그런데 아직 사면되지 않은 정약용을 만나는 것을 꺼려하는 자들도 있었다. 그 예로 여동근(呂東根)과 여동식(呂東植) 형제를 들 수 있다. 이 두 형제는 정약용과 그리 멀지 않은 양평에 살고 있었다. 그들이 사는 곳에서 한양에 가려면 반드시 정약용의 집이 있는 소내 나루를 거쳐야 했다. 그런데도 이들은 정약용이 해배된 이후에 찾아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약용은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였다.

내 집 문 앞을 지나면서도 들리지 않는 것이 이미 법례(法例)가 되었으니,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천하의 괴로움 중에는 사람들은 기뻐하는데 나만 슬퍼하는 것보다 심한 것이 없고, 천하의 한(恨) 중에는 나는 그를 생각하는데 그는 나를 잊는 것보다 심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⁵¹⁾

후에 이 두 형제는 다시 정약용과 친분을 유지하여, 1823년(순조 23)에는 천진암에 가서

45) 정약용, 『다산시문집』 제16권, 「司諫院正言翁山尹公墓誌銘」
46) 정약용, 『여유당전서』 제1집, 詩文集 제15권, 「先仲氏墓誌銘」
47) 정약용, 『여유당전서』 제1집, 詩文集 제16권, 「司憲府掌令錦里李周臣墓誌銘」
48) 정약용, 『다산시문집』 제20권, 「上仲氏」 辛未冬
49) 정약용, 『다산시문집』 제2권, 「秋夜同南臯」
50) 정약용, 『다산시문집』 제2권, 「簡寄南臯兼貢豉醬」
51) 정약용, 『여유당전서』 제1집, 詩文集 제19권, 「答呂友濂」

함께 유람하였다.⁵²⁾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인연을 맺었던 초의선사(草衣禪師)⁵³⁾도 마현으로 스승 정약용을 찾아왔다. 정약용은 제자인 초의에게 자신의 고향으로 옮겨와 퇴락한 절집을 수리해서, 가까이서 서로 왕래하며 지내자고 제안했다.⁵⁴⁾ 이러한 연유에서인지 초의는 1830년(순조 30) 겨울 수중사(水鍾寺)에 머물며 정약용을 종종 찾아뵈었다.⁵⁵⁾ 그러면서 그는 정약용의 아들 정학연(丁學淵)을 비롯하여 홍현주(洪顯周) 등 이 지역의 선비들과 폭넓게 교류하였다.

한편, 정약용은 해배 이후 학문적 토론에도 열정을 보였다. 남인 계열이었던 정약용은 당파(黨派)의 구분 없이 열린 자세로 다양한 인물들과 관계를 맺었다. 노론계의 이재의(李載毅)·홍석주(洪奭周)·홍현주(洪顯周)·김매순(金邁淳)과 소론계의 신작(申綽) 등이 대표적으로 교류했던 인물들이다. 당대의 대표적인 학자였던 이들은 경학 연구물을 둘러보며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누었는데, 신작의 『시차고(詩次故)』·『서차고(書次故)』, 홍석주의 『상서보전(尙書補傳)』, 정약용의 『매씨서평(梅氏書平)』·『상례사전(喪禮四箋)』·『상서지원록(尙書知遠錄)』·『아언각비(雅言覺非)』 등이 검토되었다.

정약용은 고향에 돌아온 이듬해인 1819년(순조 19) 강 건너 사마루(社村)에 사는 신작을 방문해 자신이 강진에서 저술한 경설(經說)의 일부를 내어 보이고 논평을 부탁하였다.⁵⁶⁾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고증학적 방법에 따른 경전해석의 쟁점을 토론하기 시작했다. 신작은 조선 후기 양명학의 학풍을 일으킨 정제두(鄭齊斗)의 외증손으로, 고증학에 깊은 조예를 지니고 있었다. 신작은 정약용을 처음 만나고 나서, 평소에 칭송해 왔는데 뜻하지 않게 만나 뵈고 정겹게 담소를 나누게 되니 기쁨이 기대 이상이라고 표현하였다.⁵⁷⁾ 그리고 자신의 큰형인 신진(申縉)에게 편지를 써서 “재주가 뛰어나고 문장 또한 체제를 얻었으며 경전주석에 대단히 박식하면서도 정밀하여, 내가 알고 지내는 지식인 가운데 그보다 더 나은 사람 없을 듯합니다.(1819년 8월 22일)”라고 정약용을 평가하였다. 신작은 때로는 정약용에게 함부로 선배들을 비난하지 말라는 충고도 아끼지 않았다.⁵⁸⁾

1823년(순조 23) 여름, 신작의 조카인 박종휴(朴鍾休)·박종유(朴鍾儒) 형제가 정약용의 이

52) 조성을, 2004, 『여유당집의 문헌학적 연구』, 혜안, 185쪽; 정약용, 『다산시문집』 제7권, 天真消搖集 「夜宿天真寺寺破無舊觀余蓋三十年重到也」

53) 『초의선계첩(艸衣禪偈帖)』을 보면, 초의선사는 무안현(務安縣) 장씨(張氏) 집안에서 태어나 운흥사(雲興寺) 민성(民聖)의 방에서 머리를 깎았다. 연담(蓮潭)을 사숙(私淑)하여 불법을 얻었고, 유가의 학문은 정약용에게서 배웠다.(정민, 2011, 『다산의 재발견』, 휴머니스트, 505쪽.)

54) 정약용, 『與艸衣贈言』

55) 정약용, 『다산시문집』 제6권, 其五 [贈草衣禪]

56) 정약용과 신작에 관한 논문으로는 ‘심경호, 1993, 「다산 정약용과 석천 신작의 교류에 관한 일고찰」, 『淵民學志』 창간호; 1994, 「다산과 석천」, 『한국어문』 3’ 등이 참조된다.

57) 차벽, 2010, 『다산의 후반생』, 들베개, 290쪽.

58) 신작, 『石泉遺集』 後集 권6, 「答丁承旨」

웃집으로 이주하게 되었다.⁵⁹⁾ 이에 이를 매개로 신작과 정약용 두 사람의 교류는 더욱 빈번해졌다. 정약용은 만년에 신작과 학문을 토론하고 산수에서 노닐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이에 즐거움과 슬픔도 대략 서로 같았다고까지 이야기 하였다. 다음의 시는 이 둘의 관계를 여과 없이 보여준다.

서로 아주 가까운 이웃에 살아 / 배 짜는 북처럼 자주 왕래하여라
즐거움과 슬픔도 대략 서로 같아 / 같이 기뻐하고 또 같이 한숨 쉬네
온면도 먹고 냉면도 먹으면서 / 서로 수작하며 서로 위로하노니
애오라지 답소를 돕자는 것이요 / 감히 진미를 구하는 것 아니로세⁶⁰⁾

김매순은 김창흠(金昌翕)의 현손인데, 그는 정약용과 규장각의 초계문신(抄啓文臣)으로 함께 조정에서 일한 친분이 있었다. 안동 김씨는 남양주에 위토(位土)로 유지되어 온 석식서원(石室書院)이 있었기에,⁶¹⁾ 정약용과의 교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정약용은 1821년(순조 21) 김매순과 다시 만나게 된 이후, 편지를 주고받으며 토론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듬해에 정약용의 『매씨서평』을 읽어 본 김매순은 서평을 보냈는데, 감동적인 찬사가 가득했다. 정약용은 이 편지를 받고 기쁜 감정을 곧바로 편지에서 드러냈다. “짧은 편지와 긴 편지로 정중한 가르침을 격의 없이 아끼지 않으셨으니 박복한 운명으로 거의 죽어가는 나이에 어떻게 이러한 후의를 받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격스럽기 그 지없어 처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픈 마음이 들었습니다.”⁶²⁾ 자신을 알아주는 친구가 있기에, 정약용은 더욱 분발해서 저술들을 재정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약용은 김매순과도 여가를 자주 보냈던 것으로 짐작된다. 정약용이 김매순에게 다음 달 보름쯤에 눈 쌓인 집에서 하룻밤 묵기로 한 것을 절대로 늦추거나 어긋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당부의 편지를 보낸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정약용은 그 날의 계획을 상세하게 덧붙여 보냈다. 그물로 물고기 잡자는 장소에는 오강(五江)의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 오히려 번거롭기만 할 것이니, 곧바로 산정(山亭)에서 토론을 삼고 콩을 굽자는 것이었다.⁶³⁾ 이러한 편지들을 통해 그들의 소박한 삶과 친밀한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정약용은 홍석주·홍헌주 형제와는 『상서(尙書)』에 관한 토론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좌

59) 신작, 『石泉遺集後集』 권8, 「日乘」

60) 정약용, 『다산시문집』 제6권, 「松坡酬酢 再疊」

61) 석실서원(石室書院)의 학인(學人)들에 대해서는 ‘심경호, 1998, 「조선 후기 북한강 유역의 학맥과 분포」, 『북한강유역의 유학사상』,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3-5쪽’ 참조.

62) 정약용, 『다산시문집』 제20권, 「答金德叟」

63) 정약용, 『여유당전서』 제1집, 詩文集 제20권, 「與金德叟」

의정을 지냈던 홍석주는 석실학맥의 계승자인 김원행(金元行)의 연원에 속하며 청나라에 두 번이나 사신으로 다녀온 인물이었고, 홍현주는 정조의 사위였다. 이들의 고향은 장단(長湍) 외공덕촌(外孔德村)이었는데, 별장이 양주의 광진(廣津)에 있어 정약용과의 교유가 쉬웠다. 1827년(순조 27) 겨울 홍현주가 정약용을 찾아와 『매씨서평』을 보고자 요청하였고, 후에 홍현주가 정약용과 홍석주의 교유도 주선하였다.⁶⁴⁾ 이에 홍석주는 홍현주를 통해 청나라 염약거(閻若璩)의 『상서고문소증(尙書古文疏證)』을 정약용에게 보내 주어 『매씨서평』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⁶⁵⁾

이재의는 송환기(宋煥箕)와 박윤원(朴胤源)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던 사람으로. 그는 정약용이 유배지에 있을 때부터 수많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학문 논쟁을 벌였었다.⁶⁶⁾ 주로 심성론과 경전 해석 등에 관한 토론이었다. 이재의는 정약용이 고향 마현으로 돌아온 뒤에도 교유를 계속 이어 나갔다. 1823년(순조 23)에는 정약용의 집에서 경서(經書)와 예서(禮書)를 4~5일 읽었으며, 정약용이 손자며느리를 맞아오기 위해 춘천에 가게 되자 함께 동행 하여 진귀한 경승(景勝)들을 보았다.⁶⁷⁾ 1825년(순조 25)에는 서울 집으로 가는 길에 마현을 경유하게 되자 정약용의 집에 들러 며칠 머물렀고, 1832년(순조 32) 여름에는 정약용과 더불어 여러 친구들이 여러 날을 질탕하게 놀았다고 한다.⁶⁸⁾ 이재의가 정약용의 집에서 머무를 때, 정약용의 아내는 만두를 해주기도 한 기록이 보인다.⁶⁹⁾ 이재의는 정약용과 친분이 있었던 신작·홍석주·김매순 등과도 교분을 나눴다.⁷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약용은 해배된 이후 고향 마현에서 사람들과 교류하며 말년을 보냈다. 고향으로 돌아온 정약용을 잊지 않고 반갑게 맞아주는 옛 친구들이 있었고, 강진에서 마현까지 얼굴을 보러온 인물도 있었으며, 한강변 가까이 살면서 새롭게 만난 학자들도 있었다. 정약용은 이들과 때로는 산수를 유람하고 때로는 열띤 학문적 토론을 벌이면서, 유배지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극복해나갈 수 있었다. 이때 교류했던 인물들은 노론·소론·남인 등 정파를 떠나 있었는데, 이를 통해 당시 한강 주변에 거주했던 인물들의 교유관계도 짐작해 볼 수 있다.

64) 김문식, 1996, 『朝鮮後期 經學思想研究-正祖와 京畿學人을 중심으로-』, 일조각, 120쪽.

65) 금장태, 2005, 『실천적 이론가 정약용』, 이끝리오, 285쪽.

66) 李佑成, 「文山 李載毅와 [茶山問答]」, 『佛敎와 諸科學』, 1986 참조.

67) 정약용, 『다산시문집』 제22권, 「汕行日記」

68) 이재의, 『文山集』 「自撰年譜」

69) 정약용, 『다산시문집』 제6권, 「十二月三日文山至越三日夜設饅頭脩以長句」

70) 이재의, 『文山集』 권8, 「輓丁承旨夫人洪氏」; 권5, 「石泉聽葉山房」; 권8, 「題李上舍金剛遊記」; 권4, 「奉贖慶州尹金之任」

맺음말

정약용은 벼슬했던 시기와 유배기간을 제외한 50여년이라는 인생의 대부분을 마현에서 보냈다. 이곳에서 삶과 죽음을 함께 한 것이다. 따라서 그의 삶에 있어서 마현은 큰 의미를 가지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정약용은 특히 한강을 끼고 있는 이곳을 좋아했으며, 많은 사람들과 뱃놀이를 즐기며 교유하였다. 이에 이 글에서는 정약용의 마현에서의 생활상과 함께 이곳에서의 교유관계를 정리해 인간 정약용의 삶에 대해 좀 더 폭넓게 이해하고자 했다.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약용의 5대조인 정시윤이 마현에 자리를 잡은 인연으로, 정약용은 이곳에서 태어나 75년의 일생 중 50년 가까운 세월을 고향 마현에서 머물렀다. 마현은 북한강과 남한강 두 강이 만나는 합류지점에 자리 잡고 있어 사방으로 물길이 통하고 풍광이 아름답다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은 그가 물길과 배의 활용에 깊은 관심을 보이게 했고, 그것은 배다리를 제조하고 선박과 전선의 축조를 주장한 것에서 나타났다. 정약용에게 있어 마현은 이상적 공간이기도 했다. 배 띄우고 낚시를 즐기며 자연 속에서 노니는 것이 그의 평생의 꿈이었는데, 그것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그의 고향 마현이었다. 그는 벼슬살이 중에도 근무지를 이탈하여 이곳을 찾았고, 유배 중에도 이곳을 그리워했으며, 말년에는 이곳으로 돌아와 여생을 보냈다. 또, 마현은 실학자 정약용이 역사 지리를 고증하는 연구의 장(場)이 되기도 했다.

조선시대 한강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교통로로서의 기능이 가장 컸다. 지역과 지역 간의 물적 교류는 물론이고 인적 교류도 한강의 물길을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정약용에게 있어 한강가의 고향 마현은 친우들과 교류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였다. 함께 배를 타고 산수를 즐기기도 했고, 뱃길로 편지를 주고받기도 했다. 특히, 강물 위에 떠 있는 배라는 공간은 구성원들을 밀착시켜 주는 기능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밖으로 쉽게 나갈 수 없어 외부와 단절된 자신들만의 공간이 확보되며, 여러 명이 동시에 모여서 이야기 할 장소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정약용이 천주교에 대한 이야기를 배 안에서 접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정약용이 유배 이전에 마현에서 교유했던 인물들은 주로 친인척들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정약용이 아버지의 입소에 따라 다녔고, 과거 공부와 벼슬을 위해 서울에도 올라가 있었기 때문이다. 유배생활 이전 고향에서 교유관계를 맺었던 사람들 중에서 제일 주목 되는 인물은 바로 이벽이다. 정약용에게 처음으로 천주교를 접하게 한 자이기 때문이다. 정약용의 정치적 진로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했던 천주교와의 첫 만남은 고향 마현의 강물 위에서

이벽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이다.

정약용은 1818년(순조 18)에 57세의 나이로 유배에서 풀려 고향으로 돌아와서 1836년(헌종 2) 생을 마감할 때 까지 18년을 고향의 집 여유당(與猶堂)에서 생활했다. 그는 옛 벗들을 만나 회포를 풀고 산수를 노닐기도 했고, 가까이 사는 명망 있는 학자들과 폭넓게 교류하면서 학문적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룩한 자신의 학문적 업적과 학설을 소개하고 싶어 했고, 학인들의 도움을 받아 이를 수정 보완하는데 까지 이르고자 했다. 말년의 이러한 교류는 정약용에게 유배지에서의 지친 몸과 마음을 극복해나갈 수 있게 해주었다. 또, 이때 교류했던 인물들은 노론·소론·남인 등 정파를 떠나 있었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를 통해 당시 한강 주변에 거주했던 인물들의 교유관계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원전〉

『經國大典』

『新增東國輿地勝覽』

『정조실록』

『弘齋全書』

申綽, 『石泉遺集』

李瀾, 『星湖僿說』

李載毅, 『文山集』

丁若鏞, 『經世遺表』

_____, 『茶山詩文集』

_____, 『與猶堂全書』

〈저서〉

금장태, 2005, 『다산 정약용-유학과 서학의 창조적 종합자』, 살림.

_____, 2005, 『실천적 이론가-정약용』, 이끌리오.

- _____, 2011, 『다산 평전』, 지식과 교양.
- _____, 2012, 『정약용-한국실학의 집대성』,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김문식, 1996, 『朝鮮後期 經學思想研究-正祖와 京畿學人을 중심으로-』, 일조각.
- 박석무, 2003, 『다산 정약용 유배지에서 만나다』, 한길사.
- 윤종일 · 임병규, 2010, 『열수와 마현』, 경인문화사.
-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4, 『園幸乙卯整理儀軌(影印本)』, 서울대학교 규장각.
- 심경호, 1996, 『다산과 춘천』, 강원대학교출판부.
- 위정철, 2012, 『존재 위백규와 다산 정약용의 생애와 사상연구』, 한국학술정보.
- 이덕일, 2004,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 김영사.
- 정 민, 2011, 『다산의 재발견』, 휴머니스트.
- 조성을, 2004, 『여유당집의 문헌학적 연구』, 해안.
- 차 벽, 2010, 『다산의 후반생』, 돌베개.

〈논문〉

- 신병주, 2010, 『관료학자 李山海의 학문과 현실대응』, 한국문화.
- 심경호, 1993, 「다산 정약용과 석천 신작의 교유에 관한 일고찰」, 『淵民學志』 창간호.
- _____, 1994, 「다산과 석천」, 『한국어문』 3
- _____, 1998, 「조선후기 북한강 유역의 학맥과 분포」, 『북한강유역의 유학사상』,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 양보경, 1993, 「정약용의 『大東水經』」, 『토지연구』 11·12월호.
- 李佑成, 1986, 「文山 李載毅와 [茶山問答]」, 『佛敎와 諸科學』

〈부록 14〉 한강·임진강 유역과 경기학인(京畿學人)의 거주지

(출처: 김문식, 1996, 『朝鮮後期 經學思想研究-正祖와 京畿學人을 중심으로-』, 일조각, 14쪽.)

